



지방의회 증계식

U대회 잉여금 경북에 왜 주나

대구시의회 추경심사

대구시의회(의장 장경훈)는 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열고 2007년도 대구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 안건들을 처리했다.

교육사회위원회(위원장 류병노)는 문화체육관광국 심사에서 대구시가 2002년 하계U대회 잉여금 730억원 중 150억원을 경북도에 주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.

이동희(수성구4) 의원은 “경북도가 대회기간 중 기여를 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시민의 노력으로 얻은 잉여금을 시장의 결정으로 경북도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”며 “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집행되어야 할 것”이라

고 지적했다. 이날 심사에서는 또 잉여금을 아금아금 빼 쓸 것이 아니라 잉여금에 국비를 보태 할 수 있는 사업 구상을 주문하기도 했다.

건설환경위원회(위원장 도재준)는 ‘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조례안’ 심사에서 위원회 구성과 실무협의회를 소위원회로 대체 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. 또한 ‘도시관리계획 정비(안)’에 대한 의견청취 후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아파트 층수 제한과 대형마트 규제에 관한 내용을 수정해 ‘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’을 수정가결했고 행정자치위원회(위원장 이재술)도 기획관리실, 소방본부 등 소관 기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.

최일영기자

mc102@idaegu.com